



즐거운 날뛰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린이 민속놀이 행사'가 열렸다.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어린이집이 개최한 '전통놀이 한마당'에서 한복을 곁들여 치러주고 날뛰기를 하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명절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위직량기자 jrwi@

무안반도 통합 논의 가속도

목포시·의회·주민대표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무안·신안군의회는 반대 회견...갈등 빛을 띠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주민 대표가 25일 무안반도 자율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주민서명 대표자인 고장열(‘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씨는 주민들의 통합건의가 가능한 하한선을 훨씬 웃도는 3만 2천244명의 서명을 받아 목포시에 접수했고 전남도를 거쳐 이날 행안부에 제출했다.

또 무안과 신안 주민 대표도 각각 6천여 명과 1천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9일까지 해당 군청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유권자 2%의 서명만 받

으면 주민들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데, 목포는 3천660여 명, 무안은 1천120여 명, 신안은 780여 명이상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성남, 하남시 등에서 자율 통합 건의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이 함께 건의한 것은 목포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자치권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해 무안반도 주민들의 자율통합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안·신안군의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로 해

통합 찬반 지역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시기상조이며 통합과 현 상태 유지 중 어떤 것이 지역발전의 도움이 되는지를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더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역 군의회가 공식행사를 통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통합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무안반도 통합 시 4천300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세금혜택, 농어촌 자녀 대학 특례입학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다음달 중에 여론조사를 거쳐 12월에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일정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elee@
/신안=조완범기자 wncho@

디자인비엔날레, 세계가 탐낸다



네덜란드에 전시 수출...7개 국서 러브콜
국내선 출간·도자기 등 상품화 잇단 제의

주제전 '한글' 색선의 '한글 퍼즐'도 이 지역 디자인업체인 인스나인(황인욱 대표)이 생활 도자기로 상품화했다. 이 작품은 '오' '이' '기' 등 6종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등 그 어떤 문구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신개념 한글 퍼즐이다.

또한 지난 23일 재단이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소개한 '비즈니스 데이'도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아트큐브 윤석영 대표 등 14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품 상품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업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가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으면서 고부가 문화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디자인 전시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처음이다.

또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부 작품이 속속 상품으로 개발돼 예술성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4일 “최근 네덜란드 디자인협회가 위트레흐트(Utrecht) 도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순회 전시를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현재 전시기획 실무자들이 일정 등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폐막(11월4일) 이후 빠르게 연말이나 내년초에 유럽무대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7개국에 이른다. 지난 17~18일 프로그래밍과 개막일에 맞춰 광주를 찾은 이들 미술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소재로 한 이번 전시에 감명을 받아 자국에 순회 전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단에 타진했다.

또 국내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그룹 ‘가슴 연구소’의 출품작 ‘살림, 살자’는 오는 11월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실버박람회 주회측으로부터 전시 의뢰를 받았다. ‘살림, 살자’는 과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파리채, 성냥, 화로 등 2만여점의 세간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전시 작품의 상품화 추진도 활발하다. 주제전 ‘음식’ 색선에 소개된 ‘요리요정 라쿠루’는 오는 28일 옹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비빔밥을 만들어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과정을 담은 설치 작품이다.

“문화전당工期 차질 최소화 할 것”

이병훈 추진단장 “별관 보존방법 전문가 검증 후 결정”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옛 도청 별관 일부 존치 합의안을 존중해 아시아문화전당 공기 차질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존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추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별관의 구체적인 보존방안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되 검증 후 결정할 것이며 합의정신에 따라 시민 여러분도 이런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관을 보존하기로 한 만큼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 개념을 정한

뒤 실시설계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5·18정신과 전당의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관의 보존방식과 관련, “지금 보존방식이 게이트안이나, 3분의 1 존치안이 나에 대해 언급하면 화합의 분위기를 깰 수 있다”며 “다만 유인촌 장관과 10인대책위의 합의문에 담긴 뜻을 따를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문화전당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되 10월께 자체점검을 통해 향후 문화전당의 건립 일정을 밝힐 것

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전당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 별관논란으로 생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별관 존치·보존 양극단에서 물러나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는 지난 22일 “어떤 형태로든 별관을 보존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모레퍼시픽 한물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와 소화와 균형 잡힌 '물리'를 구현하기 위한 한물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특별한 이유

- 1인 1일 케어
- 한방 화장을 한물 전용 사용
- 공수 제공은 주체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럼도
도대어 Cashless 사용가능